

## <제10강>

### 문장의 확대

#### 1. 문장의 유형

1) 홑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예) 주연이가 과자를 먹는다.

2)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1) 안은문장 :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

예) 현성이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2) 이어진 문장 : 둘 이상의 홑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

예) 옥션이는 떡을 먹으나, 서형이는 빵을 먹는다.

#### 2. 문장의 확대

##### 1)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 안은문장 :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
- 안긴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

##### (1) 명사절을 안은문장

- 개념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
- 실현 : 서술어에 명사형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 ① ‘-(으)ㄴ’ 명사절 : 완료(完了)의 의미. 구체적이고 정지적이다.
  - 어울리는 서술어 : ‘알다, 밝혀지다, 드러나다, 깨닫다, 기억하다, 마땅하다’
  - 예) 그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음을/\*지나갔기를} 알았다.
- ② ‘-기’ 명사절 : 미완(未完)의 의미.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동작적이다.
  - 어울리는 서술어 : ‘바라다, 기다리다, 쉽다, 좋다, 나쁘다, 알맞다’
  - 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옴을} 기다린다.

## (2) 관형절을 안은문장

- ① 개념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 ② 실현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 이루어진다. 이 요소들은 다 음에서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예)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을/읽던} 책이다.
- ③ 종류
  - ㄱ. 길이에 따라
    - (ㄱ) 긴 관형절 : 문장 종결형 + 관형사형 어미 (예) 그가 애썼다는 사실
    - (ㄴ) 짧은 관형절 :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예) 그가 애쓴 사실
  - ㄴ. 성분의 쓰임에 따라
    - (ㄱ) 관계 관형절 :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이 되는 경우로, 문 장 성분이 생략되어 형성되었다. 어떤 명사 앞에서든 쓰일 수 있다.
      - a. 극장에 가는 하늘이를 보았니? → 하늘이가 극장에 갔다 : 주어 역할
      - b. 만익이가 그린 그림이 좋다. → 만익이가 그림을 그렸다 : 목적어 역할
    - (ㄴ) 동격 관형절(보문) : 관형절의 피수식어(체언)가 관형절의 한 성분이 아니라 관형절 전체의 내용을 받아 주는 관형절로, 성분 생략이 없이 형성된 관형절이다. 특수한 명 사 앞에서만 쓰인다.
      - a. 서형가 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금방 들었다.  
→ 소식 = 서형이가 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
      - b. 옥선이가 합격한 사실을 너는 모르니?  
→ 사실 = 옥선이가 합격했다

### [‘관형절 + 것’]

#### 1. ‘관형절 + 것’

- (1)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에 ‘-는 것’이 붙어서 되는 것과 관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바로 ‘것’이 붙어서 되는 것 이 있다.
  - 긴 관형절 + 것 :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한다.’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완전한 문장에 관형 사형 어미 ‘-는’을 매개로 하여 의존명사 ‘것’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 짧은 관형절 + 것 : ‘나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그가 책임을 회피한다’에서 서술 어 ‘회피하다’가 본래의 시제를 그대로 살린 관형사형 어미로 활용한 후 의존명사 ‘것’이 연결되어 이 루어진 구조이다.
- (2) ‘관형절+것’은 대부분 명사형어미 ‘-(으)ㄴ’을 대신할 수 있다.

#### 2. 처리

- (1)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관형절을 안은문장에서 다루게 되었다. 그 까닭은 위의 밑줄친 절이 명사절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다시 ‘관형절 +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임지룡 외, 2005 :253).
- (2) 밑줄 친 절에서 쓰인 ‘-(으)ㄴ 것’, ‘-는 것’은 ‘-음, -기’와 기능상 유사한 점이 많고, 많은 경우 바꾸어 쓸 수 있어 이들이 포함된 문장을 명사절을 안은문장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하였다.(제6차 문법 교과서). 특히 구어체에서는 ‘-음, -기’ 대신에 ‘-(으)ㄴ 것, -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

많다. 하지만, ‘-(으)ㄴ 것, -는 것’에 포함된 ‘-(으)ㄴ, -는’은 관형사형 어미고 ‘것’은 의존명사이다. 이들 관형사형 어미는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어미와 같은 층위인 것으로 다를 수 없고, 여기서 사용된 ‘것’은 사물을 나타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들은 명사절을 가진 구성이 아니라 관형사절을 가진 구성으로 보기로 한다.

(고영근·구본관(2008 :500))

---

### (3) 부사절을 안은문장

- ① 개념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sup>1)</sup>
- ② 실현 : 부사파생접미사 ‘-이’, 부사형전성어미 ‘-게, -도록, -아서/어서, -듯이, -르수록, -다시피, …’ 등이 결합하여 이뤄진다.
- ③ 종류
  - ㄱ. -이 : 수진이가 말도 없이 갔다.
  - ㄴ. -게 :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ㄷ. -도록 :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 ㄹ. -아(어)서 : 나는 혜선이가 잡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
  - ㅁ. -듯이 : 나그네는 구름에 달이 가듯이 갔다.
  - ㅂ. -르수록 : 혁수는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의 소중함을 느꼈다.
  - ㅅ. -다시피 : 요즈음 나는 너도 알다시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 [부사절의 처리]

---

1.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한다.

- ①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 ②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 ③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 ④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⑤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위 문장들에는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다’, ‘아는 것도 없다’, ‘그림이 아름답다’, ‘비가 오다’, ‘발에 땀이 나다’ 같은 문장들이 안겨 있는데, ‘-이’, ‘-게’, ‘-도록’, ‘-(아)서’에 의하여 부사절로 된 것이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 ‘-(아)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7차 문법교과서, p.164]

2. 부사절을 보는 입장차에 따른 겹문장 체계 : (1)은 접사 ‘-이’ 유형만을 부사절로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겹문장 체계이고, (2)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부사형어미로 허용하는 입장을 반영한 겹문장 체계이다. 또한 (3)은 대등적 연결어미마저 부사형어미로 인정할 경우의 겹문장 체계이다.

---

1) ‘-게’ 이외에도 부사절을 이루는 연결어미에는 ‘-듯이, -도록, -르수록, -다시피’ 등이 있다. 예)

(1) 문장 ㄷ 홑문장

- ㄴ 겹문장 ㄷ 안은문장 ㄷ 명사절을 안은문장
  - | ㄱ 관형절을 안은문장
  - | ㄴ 부사절을 안은문장
  - | ㄷ 서술절을 안은문장
  - | ㄹ 인용절을 안은문장
- ㄴ 이어진 문장 ㄷ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 문장 ㄷ 홑문장

- ㄴ 겹문장 ㄷ 안은문장 ㄷ 명사절을 안은문장
  - | ㄱ 관형절을 안은문장
  - | ㄴ 부사절을 안은문장
  - | ㄷ 서술절을 안은문장
  - | ㄹ 인용절을 안은문장
- ㄴ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3) 문장 ㄷ 홑문장

- ㄴ 겹문장 ㄷ 안은문장 ㄷ 명사절을 안은문장
  - ㄱ 관형절을 안은문장
  - ㄴ 부사절을 안은문장
  - ㄷ 서술절을 안은문장
  - ㄹ 인용절을 안은문장

3. 그러나 2007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문법, p.346)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서술절을 안은문장

① 개념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특정한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이 다른 안긴문장들과는 차이가 있다. 서술어 1개에 주어가 2개 이상 나타난다.

ㄱ. 영수는 키가 크다 : [영수는]<sub>주1</sub> [[키가]<sub>주2</sub> [크다]<sub>서2</sub>]<sub>서1</sub> ‘키가 크다’가 절임.

ㄴ. 정아가 얼굴이 예쁘다 : ‘얼굴이’의 서술어는 ‘예쁘다’이고, ‘정아가’의 서술어는 ‘얼굴이 예쁘다’이다.

② 특징

ㄱ. 이중주어문으로 보인다.

ㄴ. 서술절은 그 속에 다시 다른 서술절을 가질 수 있다.

ㄷ. 서술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의 일부분이거나, 그 소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서술어는 형용사가 대부분이다.

a. 집은 우리 집이 제일 좋다.

b.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

### (5) 인용절을 안은문장

① **개념**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기거나, 의성어·의태어를 인용의 부사격조사와 결합하여 표현한 문장. 통사상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 ② 종류

##### ㄱ. 직접 인용절

(ㄱ) **개념** :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는 것

(ㄴ) **실현** : ‘라고, 하고’가 붙어, 따옴표에 의해 직접 인용한다.

예) 정웅이가 “교수님, 하늘이가 결혼한대요.”라고 말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나보고 “시골뜨기, 시골뜨기”라고 놀리자 …

##### ㄴ. 간접 인용절

(ㄱ) **개념** :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 인용한 것

(ㄴ) **실현** : ‘고’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난 간접 인용절에서는 ‘이라고’가 아니라 ‘이라고’로 나타난다.

a. 밥 먹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b. 선미가 중학교 국어 교사라고 한다.

### [직접인용절을 간접인용절로 고치기]

---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다 남아!”라고 말씀하셨어.

→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다 남으라고 말씀하셨어.

---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따옴표 (“”)를 없애고 간접 인용 조사 ‘고’를 붙이면 된다. 이때 인용절의 종결 표현에 따라 간접 인용절로 바꾸어 주는 어미는 약간씩 다르다.

[평서문, 감탄문] 서술어의 어미를 ‘-다’로 바꾸고 ‘고’를 붙임.

[청유문]                    “                    ‘-자’                    ”                    ‘고’                    ”

[명령문]                    “                    ‘-으라’                    ”                    ‘고’                    ”

[의문문]                    “                    ‘-느냐’                    ”                    ‘고’                    ”

단, 의문문에서 인용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서술격 조사일 경우는 ‘-냐’로 바꾼다.

---

## 2)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홑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두 절은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지는데, 이 때 **앞절과 뒷절이 갖는 의미 관계가 중요한 변별 기준이 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된 문장은 홑문장으로 본다.** (예) **다빈이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 (1)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① **개념** : 이어지는 홑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함.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절은 뒷절과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 ② **실현** : 대등적 연결어미 '-고, -며'(나열), '-지만, -나'(대조) , '-든지'(선택) 등으로 실현된다.
  - ㄱ. 슬해는 취업하였고, 하니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나열)
  - ㄴ. 함박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대조)
  - ㄷ. 절약은 부자를 만드나,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대조)
  - ㄹ.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서 결정합시다. (선택)
  - ㅁ. 태연이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푼다. (동시)
    - \* 선택 관계는 연결어미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① **개념** :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다.
- ② **실현** :
  - ㄱ.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 a. 봄이 오면, 꽃이 핀다.(조건)
    - b. 내가 먹을진대, 누가 뭐라 하겠는가?(배경)
    - c. 저는 속을지언정 남을 속여서는 못쓴다.(양보)
    - d. 모든 것이 볼수록 들을수록 기가 막힐 뿐이다.(더함)
    - e. 그 누가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난 전혀 상관 않고 싶다.(양보)
  - ㄴ. '-기 때문에, -는 가운데, -는 중에'와 같이 명사절, 관형절로 된 것.
    - a.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 b.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 c. 소가 가는 곳에, 말도 간다. / 비가 오는 중에, 가끔 번개가 쳤다.

[주의] 종속절에는 명사절이나 관형절로 된 유형도 많이 있다. [7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 p.206]

### (3)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sup>2)</sup>(고영근·구본관, 2008:489)

2)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이런 차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상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분류는 궁극적으로 '의미론적 차이'일 수 있으나 연결어미의 종류도 고려해야 한다.

- 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자리를 바꾸면 커다란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 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꽃이 피면 봄이 온다.
- ②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후행절의 요소를 선행절에서 일반 대명사나 재귀칭 대명사로 나타낼 수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가능하다.
  - ㄱ. \*자기 동생은 열심히 일했고, 현성이는 놀기만 했다.(자기=현성)
  - ㄴ. 자기 동생이 열심히 일해서 현성이는 기분이 좋더라.(자기=현성)
- ③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조'나 '주제'의 보조사 '은/는'이 결합될 수 있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ㄴ. \*봄은 오면 꽃은 핀다.
- ④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가능하다.
  -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 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꽃이, 봄이 오면, 핀다.

#### (4) 이어진 문장과 문법 현상

- ① 앞절과 뒷절에 같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대치되거나 생략된다.
  - ㄱ. 나는 은애를 자주 만나지만, 그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대치)
  - ㄴ. 나는 은애를 자주 만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생략)
- ② 앞절과 뒷절의 서술어가 같으면 앞절의 서술어가 생략되거나, 뒷절의 서술어가 '그러하다'로 대치된다.
  - ㄱ. 주연이는 서울로, 지경이도 서울로 갔다.(생략)
  - ㄴ. 주연이는 서울로 가고, 지경이도 그랬다.(대치)
- ③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어서' 등의 연결어미는 명령형과 청유형에 결합하지 못한다.
  - ㄱ. \*피곤해서 좀 쉬자.
  - ㄴ. \*저 사람을 믿을 만해서 그에게 부탁해라
- ④ 앞뒤 절의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앞절 사건이 항상 먼저 일어남을 나타내는 '-고서, -(아)서, -(으)ㄴ들, -건대, -자, -(으)ㄴ수록' 등은 시제를 나타내는 '-았-, -겠-, -더-' 등의 어미가 붙지 않는다.
  - 예) \*한 시간 동안 일을 했고서 쉬었다.
- ⑤ '-느니, -지만, -되'는 의문형과 결합하지 못하며, '-거든'은 평서형이나 의문형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 ㄱ. \*비가 그쳤지만 아직 날이 개지 않았느냐?
  - ㄴ. \*비가 그치거든 떠나려느냐?
- ⑥ '-느라고, -고서, -(으)려고'는 앞뒤 절의 주어가 항상 같아야 하므로 뒷절의 주어가 언제나 생략되어 있다.
  - 예) 나는 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나는)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